

우주

스타링크, 위성과 지상 주파수 모두 확보

우주 정의훈_02)368-6170_uihoon0607@eugenefn.com

스타링크 모바일, D2D 위성 1만 5,000기 승인

지난 10월 7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스페이스 X의 차세대 단말 직접통신(D2D) 위성 1만 5,000기 배치 신청을 부분 승인했다. 2025년 9월 신청 이후 약 1년 만으로, 승인된 군집은 고도 약 330km 안팎의 9개 궤도면에 배치돼 미국 내에서는 위성용 통신서비스인 MSS(Mobile Satellite Service) 뿐만 아니라 지상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직접 보유한 채 위성 에 적용한 SCS(Supplemental Coverage from Space)도 가능해졌다. 해외에서는 일반 스마트폰 대상 직접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FCC는 바로 다음 날 D2D 용으로 25MHz 규모의 프라임 대역을 경매에 부치는 방안까지 발표하며 연이어 위성 직접통신 지원 조치를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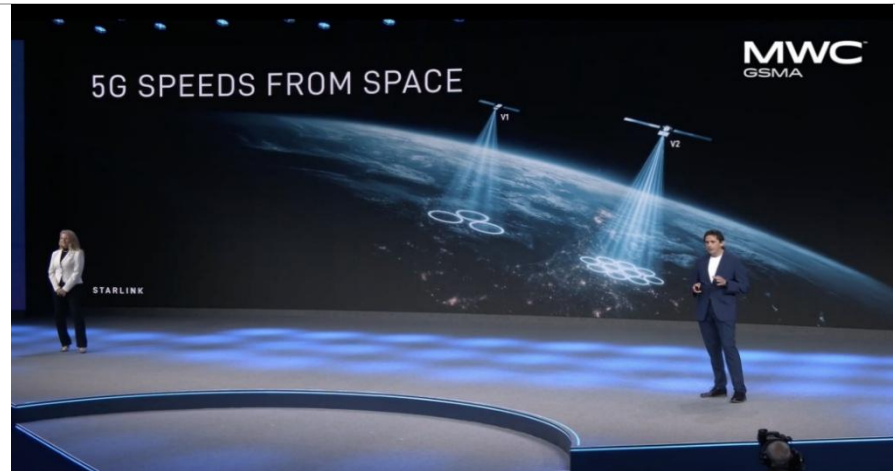
다만 이번 승인에는 일부 조건이 붙었는데, 스페이스 X가 에코스타로부터 인수한 AWS-4와 AWS-H 블록, 비대칭 AWS-3 대역은 거래 2단계가 종결되는 2027년 11월 이후에야 본격 사용할 수 있고, 그전까지는 발사 초기 궤도 운용 과정의 시험만 허용된다. 주목할 부분은 규정 특례다. SCS 규정상 위성 사업자는 지상 이동통신사에서 주파수를 임차해 서비스해야 하지만, 스페이스 X는 인수한 지상 면허를 직접 보유하게 되는 만큼 이 요건을 면제받았다. 위성 and 지상 주파수를 모두 보유한 통신망 사업자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스타십 상용화가 예상되는 2027년 이후에는 스타링크 모바일 위성(V2 모바일) 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D2D 위성이 문자 등 제한된 서비스 중심이었다면, V2 모바일은 일반 스마트폰에 광대역 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연결 까지 직접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스타십이 첫 궤도 비행에서 스타링크 V3 사출까지 성공한 만큼, 차세대 스타링크 V3(브로드밴드)와 V2 모바일(D2D)의 배치 속도는 스타십의 비행 빈도에 연동돼 빨라질 전망이다.

스페이스 X의 주파수 확보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FCC 승인 직후 회사는 저대역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는데, 저대역은 건물 등을 잘 투과하는 특성이 있어 위성 신호가 닿기 어려운 실내 커버리지를 보완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대형 이동통신사들과의 경쟁도 염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차세대 위성과 저대역 주파수가 결합되면 스타링크 모바일이 위성 and 지상 주파수를 아우르는 최초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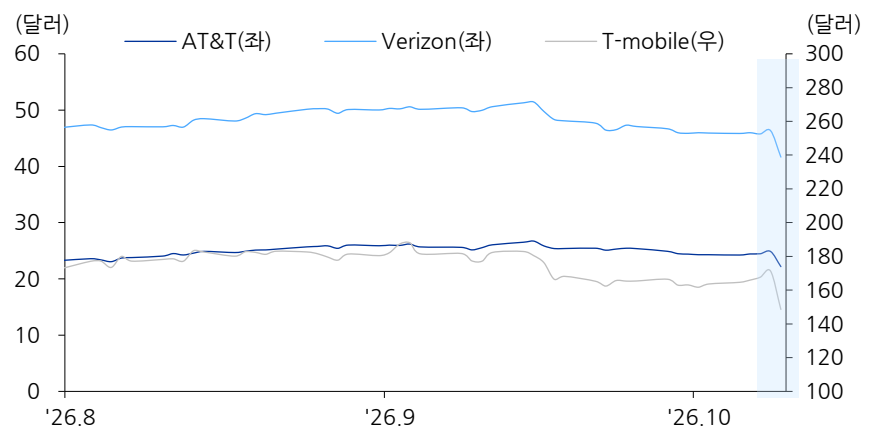
과거 각각의 역할이 극명하게 차이났던 지상 and 위성통신의 서비스 경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고 있다. 스페이스 X는 발사체 개발(스타십) and 위성 배치(V3 브로드밴드 위성, V2 모바일 위성), 주파수 확보(AWS 대역-저대역)까지 위성통신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관건은 스타십의 상용화 시점 및 비행 빈도와 2027년 11월 에코스타 거래 종결, 추가 저대역 확보 여부다. 이는 기존 이동통신사에는 장기적으로 위협 요인이지만, 위성 부품 and 지상 인프라 및 지상 단말기 등 D2D 밸류체인 전반에는 새로운 수요가 열리는 국면으로 판단한다.

2026 MWC 에서 발표된 스타링크 모바일



자료: SpaceX, 유진투자증권

미국 통신 3 사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9.30 기준)